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가톨릭농민회

김 수 태*

- I. 새로운 연구의 필요
- II. 한국사회운동사에서의 가톨릭농민운동
- III. 안동교구의 농민사목
- IV.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
- V. 비판에 대한 재응미

국문초록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현대의 한국사에서나, 안동교구사에서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당시 안동교구가 현대의 한국천주교회사 속에서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운동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때문에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세계 천주교회사의 흐름에서도 그 역사적 위치를 올바르게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커다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농민운동에 대해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및 사회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kstae@cnu.ac.kr

다. 따라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모두를 담고 있는 풍부한 사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한 주교나 성직자 및 평신도들이 보여준 인상 깊은 신앙이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운동사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사적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농민과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역사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동교구에서 이루어진 가톨릭 농민운동이 현대의 한국사 및 한국천주교회사의 전체 흐름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인 영향을 준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 한국 가톨릭농민회의 전체 활동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방대한 작업에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가톨릭농민회를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대 한국천주교회사가 새롭게 읽혀지기를 바란다.

◆ 주제어

안동교구, 농민사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 농민운동, 주교, 성직자, 평신도.

I. 새로운 연구의 필요

안동교구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필자에게 맡긴 본래의 주제는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자로 하여금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켜주었다. 두 개의 주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가톨릭농민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서술의 전개에 조금 차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주제를 함께 묶어서 개략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두 개의 주제에 대한 물음은 필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졌다. 농민에 대한 사목이라는 사실과 가톨릭농민회라는 단체를 다루는 것에서도 다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톨릭농민회 역시 조직의 활동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 주체인 농민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안동교구나 가톨릭농민회가 농촌, 농업, 농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도 그 내용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한국사에서나, 안동교구사에서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곧바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안동교구에서의 가톨릭농민회 활동 모두에는 너무나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료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이나, 활동 역시 인상적이라는 점에서도이다. 그러나 현재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다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커다란 아쉬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주제 가운데에서 농민사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농민사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거기에 전념한 정호경 신부의 저술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1986)이나, 『해방하시는 하느님-농민공동체의 교리서(시안)』(1987) 등이 있을 뿐이다. 정호경 신부에 대한 전기인 한상봉의 『농민이 된 신부 정호경』(2013)이 나와서 그의 농민사목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사목에 대해서 신학적인 접근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만나게 되는 교회사적인 관심이 보다 근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서이다.

한편 한국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톨릭농민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와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농민회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1999)가 나온 이래, 2017년에 들어와서 두 권으로 된 『가톨릭농민회 50년사』가 다시 나왔다. 한 권은 역사서술이며, 다른 한 권은 자료집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진 가톨릭농민회의 역사는 통사적 흐름에 대한 정리에 이어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안동교구에서는 어느 개별교구와 달리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안동교구에서는 교구사 자료집으로 『교구농민회』(1996)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교구 25년』(1997)에서도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 「오원춘 사건」, 「생명운동공동체운동」이라는 항목 아래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풍부한 자료들과 함께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간략한 역사정리를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에서는 문집형식의 성격을 지닌 『안동 가농 30년』(2011)을 펴내어서 가톨릭농민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주었다. 한편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실행위원회에서 2004년에 펴낸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연구』와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연구 자료집』이나, 2015년에 나온 교구장들의 『연도별 안동교구 사목교서(1969~2014)』와 같은 책들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¹⁾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별 연구를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

는 가톨릭농민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연구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호경 신부의 「가톨릭농민운동의 어제와 오늘」(『더불어 살기운동』, 1986)과 「한국가톨릭농민회-그 역사와 이념」(『종교학연구』 1, 1988)을 들 수 있다. 원주교구 김승오 신부의 「한국가톨릭농민회와 생명공동체운동」(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가 나왔으며, 정성현에 의해서 「한국 천주교회의 농민운동」(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2000)을 통해서 가톨릭농민회의 전체 역사가 짧은 분량으로 압축되어 서술되었다.

이와 달리 농업경제에 관심을 두면서 농민운동에 참여한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한국농민운동사연구』, 1991)과 같이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내용들도 찾아진다. 정치학 연구인 김태일의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 : 1964~1990』(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가톨릭농민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이우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안동교구와 관련해서는 역시 경제학 전공인 김종현, 「경북지역 농민운동사연구 : 1976~1994-안동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이 나와 있다. 이 연구는 안동교구의 가톨릭 농민회를 단독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리고 강인철의 『종교권력과 한국천주교회』(2008)에서도 가톨릭농민회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을 엿볼 수 있다.³⁾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농민운동에 대해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및 사회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 농민운동에 대한 역사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가톨릭농민회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농민운동과

-
- 1) 2009년에 원주교구와 마산교구에서 가톨릭농민회 30년사를, 2013년에는 광주대교구에서 40년사를 펴내었다.
 - 2) 김태일도 「1988년 고추싸움과 농민통제」,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농민』, 1990을 다루었으나, 사례소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3) 이밖에 김소미,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원주지역의 부락개발, 신희, 생명운동』, 2017도 참고가 된다.

관련해서 운동사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서 『한국사시민강좌』에 「농민과 국가권력」을 기획한 이기백의 지적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우리 역사의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고, 따라서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운동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비교적 관심을 가져온 편이었으나, 농민 자체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의 농민에 대한 인식은 피상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본과 말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⁴⁾ 이는 운동사가 가지는 연구의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농민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톨릭농민회의 역사가 운동사로 서만 아니라, 농민의 존재를 새롭게 역사적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안동 가농 30년』은 그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저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톨릭농민회를 이끈 활동가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 즉 농민들의 존재를 비로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톨릭농민회와 관련해서 주교나 사제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이 있어왔지만, 평신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함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역시 인물 하나하나, 지역 하나하나의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집 형식의 성격을 지닌 때문인지 다양한 개별 주제를 다루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의 분량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농민회의 20여 년사를 서술한 정호경 신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거듭 말하거니와, 한국 가톨릭농민회 20여년의 삶에 대해 민족·민중사, 그리고 200년 한국가톨릭농민사의 맥락 안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마지 않는다.”라고⁵⁾ 강조하였다.

4) 이기백, 「독자에게 드리는 글」, 『한국사시민강좌』 제 6집, 1990.

5) 정호경, 「가톨릭농민운동의 어제와 오늘」, p.148.

천주교의 수용 이후 농민 등 피지배층이 신앙의 중심이 된 이후 천주교 내에서의 농민의 역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톨릭농민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심을 기울일 때에 여전히 호교론적 순교사 혹은 선교사 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거나, 주교나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천주교회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부해질 것이며, 더욱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 있다. 앞으로 안동교구를 비롯해서 한국 가톨릭농민회의 역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개별 연구가 새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동교구에서 이루어진 가톨릭농민운동이 현대의 한국사 및 한국천주교회사의 전체 흐름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인 영향을 준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해보고자 한다. 현재 드러나 있는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료의 보고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동교구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운동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때문에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가톨릭농민회를 거칠게 스케치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후일에 있을 사실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전체 활동과 의미를 다루어보는 본격적인 방대한 작업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그 역사적 위치를 제대로 부여받게 되기를 바란다. 특히 그것이 한국천주교회사에서나, 세계 천주교회사의 흐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한국사회운동사에서의 가톨릭농민운동

현대사만이 아니라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⁶⁾ 이때 민중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층세력이었다. 말하자면 민중 없이는 사회자체의 존립조차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세력은 이러한 민중에 의지해서 그 존립을 유지할 수가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민중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농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농업사회였고, 그 백성의 대다수가 바로 농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농민과 같은 민중은 지배세력에 참여하지를 못하여 왔다. 사회의 기층세력이면서도 주인의 구실을 못하였고, 다만 때로 불만의 표지를 나타낼 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 불만이 나타난 구체적 표현은, 소극적으로는 지배기구의 테두리 밖으로 유망하는 것이었고, 적극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중의 반항은 종종 지배세력의 재편성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곤 하였다. 즉 반항을 통하여 민중 자신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곤 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은 한 발짝씩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길을 닦아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다. 한국사의 흐름에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직접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였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동학농민 혁명운동이었다. 이때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은 일시나마 집강소를 통한 정치참여로까지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후 3·1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농민들은 학생, 상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 그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처럼 크게 성장한 민중은 항상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주동세력이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이들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세는 4월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더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

6) 이기백, 「한국사의 발전과 지배세력」 『한국사신론』 신수판, 1990, pp.492~493.

세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건설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었다고 하겠다.

민중의 주된 구성원인 농민이 지배세력으로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사회운동사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전의 불교나 동학이 아닌 천주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농민들에 의한 가톨릭 농민운동이 1960년대 후반에 새롭게 전개되었던 것이다.⁷⁾ 농민운동의 역사에서는 천주교의 주도성은 개신교의 그것과 비교할 때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개신교와 유사한 발전패턴을 보였던 노동운동이나 도시빈민운동과는 다른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에서는 천주교가 개신교와는 다른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함께 지적된다. 사실 개신교의 농민운동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농민운동 조직인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가 창립된 것은 1982년 초였고, 이 단체가 1989년 초에 ‘한국기독교농민회’(기농)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농민운동의 등장은 천주교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약 10년이나 지체되었던 것이다.

잘 알려지고 있듯이 천주교의 농민운동은 ‘노동운동의 발전적 분화’라는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1964년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내부에 설치된 ‘농촌청년부’가 2년 후인 1966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로부터 독립하여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JAC)’로 발전했고, 이것이 1972년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로 개편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농민운동에 나섰다. 이후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약 10년 동안 ‘국내 유일의 농민운동조직’으로서 한국 농민운동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까지도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여전히 한국의 농민운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새로운 변화양상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사회운동은 ‘민중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운동,

7) 강인철, 「사회운동의 제도화의 동학, 갈등적 과정으로서의 사회참여」, 『종교권력과 한국천주교회』, 2008, pp.293~295.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되었는데, 특히 농민운동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이다.

현대 한국농민운동사의 흐름에서도 가톨릭농민회의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⁸⁾ 가톨릭농민운동은 해방이후 전개된 농민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농지개혁이 실시된 이래 사회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올바른 개념의 농민운동이 가톨릭농민운동을 통해서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가톨릭농민운동이 다른 시기의 농민운동과 구분되면서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당시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농민 스스로가 자주적·민주적·민주적·집단적 힘의 토대 위에서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회·경제·정치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일어난 동학운동은 농민혁명운동으로 불릴 만큼 농민의 저항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의병항쟁의 길을 거치고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1920년대에 소작쟁의운동과 민족개량주의 진영의 농민계몽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 등으로, 1930년대에는 좌익계열의 적색농민운동 같은 것으로 그 맥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해방 직후인 1940년대 후반 농지개혁문제가 농민운동을 핵심을 이루었지만, 1950년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농민운동은 그 표적을 상실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걸쳐 농민운동성을 띤 몇 개의 농민단체가 있었지만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고 얼마 못가서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은 가톨릭농민회의 탄생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톨릭농민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그와 같이 파악하게 되는 근거는 농민운동을 모두 그대로 농민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을 단순히 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향상을

8)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pp.227~231.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농사기술의 보급, 농민생활의 개선, 협동활동, 부락개발운동, 농민교양운동 등 그 이전까지 있어왔던 활동을 모두 농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은 농민들의 이익과 권리의 신장운동을 통하여 실현할 때에만 올바르게 성취된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한다. 따라서 농민의 집단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리한 처우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치적으로 동등한 참여와 배분의 영역을 확보하는 내용을 가진 운동일 때에만 올바른 농민운동의 개념에 부합된다는 관점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물론 주관적 의도야 권익 신장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역량부족으로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운동의 사실이 없는 한 농민운동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농민운동 단체라 말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가톨릭농민회가 탄생하면서 전개된 권익 투쟁 이전의 농민운동은 올바른 의미에서 농민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그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운동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지속적으로 권익 신장투쟁을 했으며, 이는 다른 농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내용과도 다르고 목적 설정자체도 다르다고 평가된다. 즉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전개한 농민운동이란 다른 시대의 농민운동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조건이야 어떻든 많은 단체가 열망하고 노력했으나 시도하지 못한 것을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농민의 자기필요와 자기 방식에 의한 창조적 적용을 함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농민운동방법이 창출되고, 실제 운동에서 민중적 역량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데에 가톨릭농민운동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다른 시대의 농민운동과 의미상 구분을 하는 것이며, 역사적·사회적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가톨릭농민운동사를 정리한 정호경 신부에 의해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세 차례의 큰 자체 변화를 겪어왔다. 그것은 체험이자, 창조였다. 60년대의 출발, 70년대의 성장, 80년대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 같은 자체변화는 정치·경제·교회의 큰 변화와 맥을 같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이 땅에서 농민운동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평가되며,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성숙을 위한 삶은, 이 땅의 교회와 사회에 신선한 자극과 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하여, 가톨릭농민운동의 독보성을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⁹⁾ 그가 안동교구나 전국차원으로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내린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톨릭농민운동은 한국사회운동사 속에서, 특히 한국농민운동사에서도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제 가톨릭 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은 더 이상 역사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받지 않는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Ⅲ. 안동교구의 농민사목

안동교구에서 가톨릭농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69년에 새롭게 신설된 안동교구는 교구의 특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농민사목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것이다. 교구 전역이 경북 북부 농촌지역이며 공소가 많고 신자의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점에서 농민사목이 단순히 특수사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교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⁰⁾ 이에 1977년에 들어오면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안동교구는 사목국에 농민사목부를 설치하여 새로운 농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1978년에 가톨릭농민회가 안동교구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9) 정호경, 「가톨릭 농민운동의 어제와 오늘」, p.148.

10) 안동교구, 『교구 농민회』, p.45.

이것은 안동교구가 농촌문제를 교회가 끌어안고 복음적으로 풀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농촌교회(주로 공소)가 개인구령, 내세 지향적 신앙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 숨 쉬는 현장 교회로서 농촌·농민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함께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¹¹⁾ 이는 황종렬의 표현을 따른다면, 안동교구의 농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성적 농민, 혹은 영적인 농부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소명으로 삼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¹²⁾ 그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며, 농사순교라는 여정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동반할 것인가에 물음을 계속적으로 던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운동은 천주교라는 종교와 그 구성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1. 교구장의 농민사목

안동교구의 경우 농민사목은 농민사목부의 설치목적에 잘 드러나고 있듯이, ‘가난한 자에 대한 최우선적 선택’으로서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고 열악한 농업과 농민 문제 해결에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교구장들의 사목방침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 교구장들의 사목교서나 담화문 등의 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¹³⁾

초대 교구장인 두봉 주교는 안동교구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of 정신을 살리는 새로운 교회공동체로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농민사목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매우 진보적인 선교사였던 그는 프랑스 선교사가 교회의 쇠신을 바라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of 정신을 수용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11) 안동교구, 위의 책, p.45.

12) 황종렬, 『농업농촌농민과 교회공동체』, 『안동 가농 30년』, pp.34~35.

13) 안동교구의 교구장들의 사목교서는 『연도별 안동교구 사목교서(1969~2014)』에서 인용하였다. 사목교서의 경우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는다.

강하게 요구할 정도였다.¹⁴⁾ 낡은 선교방침을 버릴 수가 없다면 한국을 떠나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 가톨릭교회로 보아서 큰 전환기였다면 교회가 처음부터 잘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대전교구의 대홍동 본당 보좌신부로 재임하던 10여 년 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지도신부로서 열심히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의 영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두봉 주교의 생각들은 그가 사목의 책임을 맡게 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갔다. 그는 교구장에서 물러난 뒤에 농민으로 살아가려는 꿈을 추구하였다. 때문에 그는 한국농민운동의 대부로 인식될 정도였다.

두봉 주교는 1970년의 사목교서에서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을 언급하면서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가톨릭농촌청년회를 권장할 것이며, 지도신부를 임명한다고 말한다. 사회개발과 관련해서 농촌이 많은 안동지역에서는 농촌개발사업에 더 나은 발전을 기하고자 하며, 가난한 농민들을 궁핍에서 구제하고, 나아가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조합, 축산조합 등의 설립을 함께 장려한다. 1974년에 들어와서 그는 본당 사목협의회와 관련해서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안동교구의 전교사업과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시 당부한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농민사목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아래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민사목이 특수사목이 될 수 없으며, 아니라는 것이다.

1976년에 그는 교구에서 가정문제와 농촌문제에 대해 역점을 두기로 하겠다고 말한다. 1976년의 춘계 주교단 총회에서 가톨릭 농민회를 교구공식단체로 인정한 이후 그의 농민사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본격화된다. 그해부터 농민들을 위한 교육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1977년 4

14) 두봉, 「한국에서의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전망」, 『교회사연구』 5, 1987. 그리고 김수태, 「라리보 주교의 대전교구 사목」, 『프랑스 선교사와 충청도』, 2018에서 두봉 주교를 비롯한 진보적인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들어온 배경을 다루었다.

월에 교구 사목국에 농민사목부를 설치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78년은 그의 농민사목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불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그는 교회와 사회의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 이상 가지자고 말한다. 교구 사목국에서 농민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1978년 상주함창본당에서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 영남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강론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 잔치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첫째로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의 참모습을 찾고 나눌 수밖에 없으며, 둘째로 가톨릭 정신에 따라 살아야하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주님 모습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에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78년에 두봉 주교가 발표한 세 편의 글들은 그의 농민사목관을 잘 드러내준다.¹⁵⁾ 1월 1일에 발표된 「농민들에게 고함(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자)」는 글은 두봉 주교가 마치 이 땅에서 나서 자란 농민의 아들과 같은 친근한 농민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당사자인 농민이 아니면 끝까지 농민의 앞길을 뚫어줄 이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면서, 농민들이 농업 농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려고 말하였다. 농민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못한 탓으로 돌리지 말고, 새롭게 자기를 발견할 것, 농민문제가 농민의 무지와 게으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욕심의 결과와 희생물로써 사산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민들이 무관심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 “스스로‘ 그리고 ‘함께‘라는 용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년 3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글을 통해서 두봉 주교가 기쁜 노동, 자기비관하지 않기, 고쳐나가기를 강조한 내용과 연결된다. 이러한 노동관 역시 가난한 농민교구의 교구장으로서 농

15)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두봉 주교의 농민사목과 안동 가농」, 『안동 가농 30년』 pp.85~93.

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함께 싸워나가기를 바라는 그의 농민사목관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3월 11일에 발표한 두 번째의 비교적 짧은 교서인 「농민은 뿌리입니다」에서는 농민이 사회의 뿌리임을 강조하고, 농번기에 들어서는 농민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아낌없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 11일에 발표된 「78년도 쌀값 제값 받기 운동에 대해서」라는 글에서는 저임금·저곡가문제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쌀값인상을 주장하였다.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열매를 소수 재벌, 특권층의 손에서 나누어, 그 혜택을 농민에까지 골고루 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우리 모두가 농민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정당한 주장을 외치는 추곡수매에 대한 가톨릭 농민회의 서명운동에 적극협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1978년과 1979년에 걸쳐서 가톨릭농민회의 창립시기에 터진 안동농민회사건(일명 오원춘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두봉 주교의 농민관은 매우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교구 전체사제들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 전체의 반향 속에서 자칫 분열과 휩박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었을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행로를 오히려 더욱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놓게 하였던 것이다. 1980년에 그는 가톨릭 농민회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교구 신자 농민들이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해줄 것을 당부한다. 1982년에는 가톨릭 운동을 함께 강조하면서, 그와 함께 가톨릭농민회를 발전시켜 공소마다 활력을 불어일으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0년에도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농민의 인권을 옹호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두봉 주교의 농민사목관은 박석희 주교에 의해서도 이어졌다. 그는 1991년의 사목교서에서 농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달라고 부탁한 두봉 주교의 당부를 다시 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1992년의 사목교서인 「생명을 북돋우는 교회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농민사목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변화된 농업환경에 대한

안동교구의 입장을 드러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전, 유기농업, 그릇된 삶의 양식 바꾸기, 건강한 먹거리 나누기 등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를 힘쓰자는 것이다. 특히 공업우선의 산업화와 거대도시화의 그늘에서 참담한 생활을 연명해가는 이 지역 농어민들의 한과 절망도 우리 것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박석희 주교는 1993년에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살립니다.」라는 담화문을 통해서 쌀 개방 이후의 현실인식과 대처방안을 드러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기농업 공동체 운동과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 운동,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농업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우리 농업 살리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농민, 농업을 살리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 가정부터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¹⁶⁾ 이에 그는 2000년 대회년을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해로 설정하고, 생명운동과 환경보전운동이 하나임을 인식하자고 강조한다.

이러한 농민사목관은 뒤를 이은 권혁주 주교의 농민사목관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갔다. 그는 2002년과 2003년에 안동교구가 어둡고 혼란 하던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겠다고 밝힌다. 그 대상으로 농민을 다시 주목하였다. 그것은 2004년의 사목교서인 「농촌의 복음화-공소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농촌의 복음화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2003년에 교구 안에 복음화특별위원회와 교구의 미래사목 비전을 담은 ‘안동교구사명선언문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농민사목을 그 첫 번째 과제

16) 안동교구, 『교구 25년』, p.227.

로 선택하여 '농민사목 실행위원회'를 통해 농민사목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농민사목을 중심으로 하는 교구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소는 대다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그대로 부여주고 있다고 한다. 공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농촌 농민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농민사목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안동교구가 '농촌교구'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거기서 복음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찾아 공소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신앙인의 참 기쁨과 희망을 살도록 하면 좋겠다고 바란다.

권혁주 주교는 2004년 11월에 「농민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안동교구 농민사목 특별교서」라는 농민사목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가 있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서 농민사목관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안동교구 농민사목의 미래와 전망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안동교구는 설정될 당시나 현재도 여전히 작은 교구, 가난한 교구, 농촌교구임을 규정한다. 교구의 기반이 되는 농업과 농민은 '위기'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농촌사목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언급한다. 안동교구는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의 아픔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목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위기를 복음적 기회로 삼는 농민사목의 추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농촌현장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목상할 수 있는 복된 장소라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농촌·농민·농업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농민사목에 관심을 기울인 교구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갈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천주교회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다시 해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안동교구의 사명선언문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를 다짐했듯이, 그것은 농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생명임을 깨달은 신앙고백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 즉 우리에게 농부의 일이 하느님의 생명을 일구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깨우쳐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의 슬픔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한다.”는 말은 안동교구가 모든 반생명적인 문화에 반대하고, 나아가 생명과 생태계를 살리려는 노력에까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한다. 때문에 생명의 일꾼인 농민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사”를 통해 인간생명에 기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적극 애용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사가 지속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인간생명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농민사목의 주된 내용으로써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나온 그의 사목교서에는 지역선교과 복음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농민사목특별교서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농민사목과 농촌선교’임을 밝히고 있다. 2007년에도 안동교구가 농촌교구로서 교구설립 초기부터 특별히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농민들의 살 권리를 알리고 되찾아주고자 노력했음을 다시 언급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배려가 인권운동과 대사회 참여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교구가 이렇게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로 거듭났듯이, 오늘에도 교회는 항상 시대의 징표를 잘 읽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풀이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2011년의 사목교서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에서는 2010년 추계 주교정기총회를 마감하면서 생명운동지침과 환경운동지침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러한 내용들이 안동교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주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09년의 사목방

향을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한 해를 산 경험이 있고, 그 이전에도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모습은 안동 교구가 꾸준히 추구해온 교회 모습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적으로 함께 펼쳐지는 이러한 운동에 안동 교구가 앞장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한국천주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는 자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본 안동교구장들의 농민사목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일정한 변화를 낳았지만, 그 본질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켜져 왔다고 하겠다. 다름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그리고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 스스로 농촌발전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하며, 그래야 농민들이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직자의 농민사목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에는 교구장들의 관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성직자들의 깊은 관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성직자들의 농민사목관은 교구장들의 그것과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가톨릭농민회의 초대 지도신부를 역임한 정호경 신부를 통해서 성직자의 농민사목에 간략하게 주목해보고자 한다.¹⁷⁾

정호경 신부는 안동교구의 첫 한국인 사제였다. 처음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로 활동하였던 그가 가장 애정을 쏟은 것은 농민사목이었다. 그가 농민사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1976년 안동교구 사목국장(장)이 되면서부터였다. 이에 그는 농민사목부의 지도신부로 출발해

17) 이하의 내용은 한상봉, 『농부가 된 사제 정호경』, pp.66~132의 농민사목 및 농민운동과 관련된 부분 및 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 류강하 신부 등의 활동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서 죽을 때까지 농민이 된 신부로 불릴 정도로 농민사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활동하였다.

그가 농민사목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초대 교구장이었던 두봉 주교의 뜻이기도 했다. 때문에 농민사목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두봉 주교의 사목관은 정호경 신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농민사목에 대한 정호경 신부의 책들마다 두봉 주교의 서문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농민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농민운동에서 지켜나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함께 성찰해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1977년 안동교구의 사목국에 가정사목부와 아울러 농민사목부가 설치되자, 그는 열 차례에 걸친 현지농민교육과 농민회 경북연합회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그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공소사목」이라는 주보를 매주 만드는 일이었다고 한다. 10월에는 ‘농민 노동자 양심수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구속되었다. 1978년에는 ‘농민과 농촌과 교회’라는 주제로 사제 수도자 전교사 연석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같은 해인 12월에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협의회가 구성되자, 그는 지도신부가 되었다. 당시 지도신부로서 그가 겪은 가장 큰 시련은 이른바 오원춘 사건으로 인한 구속사태였다.

1980년에 그는 안동교구의 사목국장직을 내려놓았는데, 이후인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약 6년 동안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지도신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1980년 광주항쟁을 경험하면서 가톨릭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1970년대에 몰입했던 권익옹호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아 인간과 사회의 동시적 해방운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농민사목방향을 모색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는 개인과 겨레와 인류 구원을 향한 운동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려면 마음을 바꾸는 내적 혁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생활에 뿌리박은 현장공동체운동

을 통해서만이 우주적 차원의 생명운동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크게 작용하였다. 결국 안과 밖의 독재와의 싸움을 통해서만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 안에서 생활공동체운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1980년대 그가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작업은 『한국천주교 농촌공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1984),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1986)이나, 『해방하시는 하느님-농민공동체의 교리서(시안)』(1987)을 함께 혹은 단독으로 저술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의 농민사목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체계적인 농민사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은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사목회의 의안의 한 부분으로 제시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교회당구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간한 것이다. 농민구원을 위한 사목은 농민의 삶 자리를 뜻하는 농촌사목이 아니라 농민사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농민사목이 무엇보다 농민을 신뢰하고 농민들 스스로 함께 자신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제대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농민사목은 농민신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을 통해서 농민사목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새 농촌교회 공동체의 건설을 크게 강조하였다. 공동체적 삶을 통해 생활 속에서 거듭나는 사랑과 해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농민사목방안을 6개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이때 그는 작은 생활공동체에 크게 주목하였는데, 한국천주교회의의 모태가 농촌공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소활성화를 위한 사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공소사목이 미사 중심의 사목에서 벗어나 공소농민의 삶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하나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남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종교집단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성경, 특히 복음서와 농민이 생활현장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농민교리서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해방하시는 하느님 : 농민공동체의 교리서(시안)』에서 농부이신 하느님에서 시작하여, 쉬시는 하느님, 함께 사시는 하느님, 해방하시는 하느님, 공동체이신 하느님이란 내용들을 농민이 배워야 할 교리라는 주제 아래 서술하였다. 교리는 나중에 아니라 처음부터 일상의 삶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는 두봉 주교의 언급처럼 그 역시 하느님은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농민과 같이 일하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리서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농이 결성되면서 가톨릭 농민회는 1990년 2월 ‘작은 가농’으로서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해 생명농업과 생활공동체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래 정호경 신부의 평소지론이었으며, 그가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던 대안운동이기도 하였다. 가톨릭 농민회의 생명공동체 운동은 이후 우리밀 살리기 운동과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생명공동체 운동의 사상적 신학적 바탕을 마련해준 것은 역시 정호경 신부였다. 그의 저술에도 실려 있듯이, 가톨릭 농민회 20주년인 1986년에 발표한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헌장과 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이후 정호경 신부는 사제로서, 이제는 스스로 농민이 되어 살기로 선택했다. 두봉 주교처럼 사제가 농민이 되어 자신의 농민사목이라는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안동교구의 초대 교구장이나 정호경 신부와 같은 성직자의 농민사목관이 안동교구의 농민사목만이 아니라, 가톨릭농민회의 방향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IV.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밀접히 연결되는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어떠한 역사적 변화를 단계적으로 이루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한국현대사 및 한국천주교회사의 흐름과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차례대로 검토할 것이다.

1. 시대구분의 논의

전국 가톨릭농민회나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의 역사서술을 보면 매우 주목되는 특징은 시대구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일반 역사서에서도 이처럼 강조되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다. 아마 농민운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역사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가톨릭농민회의 역사에 대한 시대구분은 일반적으로 정호경 신부의 시대구분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¹⁸⁾ 그는 태동기(1963~1971), 성장기(1972~1980.5.17), 성숙을 지향하며(1980.5.17~)로 크게 나누고 있다. 이를 출발, 성장, 변화 혹은 성숙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첫 번째 시기는 농촌청년중심의 계몽활동, 지역개발 활동기였다고 한다. 그 두 번째 시기는 정치·경제·문화·사회구조를 하나로 인식하면서, 특히 구조악과의 대결을 활발히 전개했던 시기으로써, 그 결과 그만큼 수난을 겪기도 했으나 실상 이 시기야말로 가톨릭농민운동이 뿌리를 내린 시기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1970년대 운동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깊이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운동의 생활성(간헐적 사건보다 일상적 삶의 운

18) 정호경, 「가톨릭농민운동의 어제와 오늘」과 「한국가톨릭농민회-그 역사와 이념」를 참고할 것.

동), 민중성과 대중성(소수의 운동보다는 농민대중의 주체성과 공동체성 신장을 통한 민중주체의 운동), 민족운동성(농민운동이 곧 민족운동...)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농민·겨레·자연의 구원을 꿰뚫은 성숙한 운동방향을 모색하며 그 새 출발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새 가농’으로 불렸다). 이를 그는 농민운동의 성숙을 지향하며 생활공동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시도를 했던 시기로 파악하였다.

1999년에 나온 한국가톨릭농민회에서 펴낸 『한국가톨릭 농민회 30년사(1966~1996)』에서는 정호경 신부의 시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서술방법 역시 비슷한데, 활동배경과 주요활동으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다. 태동기는 1963년이 아니라 1964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 번째 시기를 성숙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새로이 고양기를 설정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전환기로 파악하였다. 고양기는 6월 항쟁 이후 농민대중의 투쟁적 진출과 대중조직의 성장에 힘입어 농민운동통일을 이루어가던 시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환기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비롯한 세계사적 변동 속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새 가농이 창조적으로 분화·발전하여 생명·공동체운동, 우리 밭 살리기 운동,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도농연대를 대안운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 시기로 설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천주교회의 농민운동」을 서술한 정성현은 세 번째인 성숙기를 1987년 6월 항쟁까지로 설정하면서 ‘농민대중운동의 고양’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이후를 한국사회와 농업·농민문제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새로움에의 모색·실천기’라고 네 번째 시기를 덧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기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천주교 농민운동을 준비하다’와 ‘교회농촌청년운동에서 농민운동으로 탈바꿈하다’로 나누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농업·농민문제의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농지임차관계 실태조사, 쌀 생산비조사와 생산비 보장활동, 농협실태조사사업)’, ‘탄압을 이기고 조직은 성장한다(함평 고구마 사건, 안동농민회사건)’, 그리고 ‘생명의 농업을 모색·실천하다’로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

시기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반성’으로 언급한다.

이에 그는 가톨릭농민운동의 방향이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농촌사회의 민주화는 농민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억압하는 일체의 구조악과 싸우는 것이며, 공동체적 삶의 실현은 회원 개개인이 스스로 변화·발전하면서 가족공동체·마을공동체·교회공동체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실현이란 과제는 생명공동체 운동이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그 개념과 실천방안이 발전되어 갔다고 보았다. 외국소 및 양담배수입을 반대한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활동, 6월 항쟁과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전국농민운동연합의 결성과 새 운동으로의 전환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시기는 ‘생명운동·공동체운동으로 거듭나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도농연대는 따로 설정되고 있지 않다.

2017년에 두 권의 책으로 나온 가톨릭농민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가톨릭농민회50년사』는 1999년에 나온 책에서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위하여’로 표현하였던 것과는 달리,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로 고치면서 그것이 가톨릭농민회 50년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서 우선 2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1966~1989)’와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1990~2016)’의 2부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1부는 ‘가톨릭 농민운동의 태동(1964~1971)’,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장(1972~1980.5.17.)’, ‘가톨릭농민운동의 성숙(1980.5.17.~1986)’, ‘가톨릭농민운동의 고양(1987~1989)’으로 나누었다. 정호경 신부나 정성현이 시도했던 시대구분을 1부에 적용하고 있다. 2부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환(1990~1993)’, ‘생명공동체운동의 개척(1994~2001)’, ‘생명공동체운동의 확대(2002~2007)’, ‘생명공동체운동의 정착(2008~2016)’으로 구체적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생명공동체운동으로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1부와 2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30년사보다 매우 자세히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2권에서는 많은 활동 사례들 가운데에서 22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1권을 보완해주고 있다.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잡이로 제시하고 있다. 1.협동운동, 2.쌀 생산비 조사·보장활동,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3.농협민주화운동, 4.농지세제 시정활동, 5.강제농정 철폐 및 민주 농정 실현활동, 6.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사건(1978), 7.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사건(세칭 오원춘사건), 8.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 및 민족자주화운동, 9.농가부채해결운동, 10.민주화운동, 11.토지투쟁, 12.고추제값 받기투쟁, 13.수세폐지투쟁, 14.농민운동 통일, 15.여성농민운동, 16.생명공동체운동, 17.우리 밀 살리기 운동과 우리 콩 살리기운동, 18.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19.1990년 이후 농정활동, 연대활동, 20.통일운동, 남북농민교류활동, 21.국제연대교류활동, 22.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과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농민회의 전체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이 어떻게 시대 구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6년에 나온 『교구농민회』에서는 정호경 신부의 글인 「현대 한국천주교회와 농민운동」이 다시 반복해서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때 세 개의 시대구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①한국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가 창립되기 전까지의 전사로써 태동기(1976~1978)를 거쳐, ② 교구연합회 창립이후 투쟁의 고양과 농민운동의 대중화시기인 고양기(1979~1989)와, ③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새 운동으로의 전환기(1990~)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활동배경과 주요활동을 정리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정호경 신부의 시대구분을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에 맞추어서 수정한 것이다. 태동기를 짧게 설정하고 있으며, 성숙기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시도한 새로운 구분인 전환기는 정성현의 그것과 『가톨릭농민회 30년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세 부분에 대한 서술은 개별 연도 방식으로 1976년부터 1994년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책의 본문에서는 중요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교구 사목국 농민사목부’, ‘농민, 근로자, 양심수인을 위한 기도회’, ‘전국 쌀

생산자대회 및 추수감사제 영남대회’, ‘한국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창립’, ‘1979년도 사업계획서’와 ‘1979년도 사업보고서’, ‘안동농민회 사건(소위 오원춘사건)’, ‘1981년 추수감사제 및 안동 농민회관 봉헌식’, ‘소값 피해 보상운동’, ‘농지개량조합비(수세)현물 납부 투쟁’, ‘농가부채탕감대회’, ‘농산물제값 받기 운동’, ‘민주농협 및 의료보험 통합제 쟁취를 위한 운동’, ‘생활공동체운동’, ‘공소봉사자 학교’, ‘생명의 공동체’. ‘우리 농산 한생명 사업’, ‘교구장 담화문’등의 항목이 설정되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 역시 『가톨릭 농민회 50년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시대구분은 1997년에 나온 『교구 25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전체 10장에 걸친 교구사 가운데 3장인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 4장인 「오원춘 사건」, 그리고 7장인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가톨릭농민회 50년사』에서 2부로 크게 나눈 내용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안동교구의 새로운 시대구분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각 장에서는 역시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에서 펴낸 『안동 가농 30년』에서는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3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 아래 약사가 조금은 거칠게 서술되고 있다. 정성현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성찰과 미래에 대한 언급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역시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1) 1976년~1978년(태동기)-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의 시작, 2) 1978년~1989년(고양기)-가톨릭농민회의 조직 확대와 대중적 농민운동 조직의 태동, 3)1990년~ 현재(전환기)-전국농민회 총연맹 출범과 생명·공동체 운동의 시작으로 나누었다. 정치투쟁·생존권 투쟁에서 생명운동·공동체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하였는데, 도시·농촌이 함께 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농업·농촌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안동 가농의 심장, 분회」에서는 활

동의 기초단위인 분회와 관련하여 또 다른 시대구분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대구분은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태동기(1976년 이전), 개척기(1976~1978) :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분회의 뿌리를 넓혀가다, 도약기(1979~1980) : 분회의 성장 및 부흥기, 과도기(1989~1997) : 기존 분회소멸과 침체, 새로운 분회 창립, 발전기(1998~1999) : 분회의 역할변모와 정착, 재도약기(2000~ 현재) : 도농 협력형 생명공동체운동 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가톨릭농민회에서 분회를 어떤 단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분회 역시 변화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를 다룬 김종헌의 경제사 논문인 「경북 지역 농민운동사, 1976~1994- 안동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1995)에서의 시대구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른 시대구분이 아니라, 안동가톨릭농민운동의 발전단계에 따른 것이라고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출범(1976~1979)’, ‘안동가톨릭농민운동의 성장기(1980~1984)’, ‘안동가톨릭농민운동의 고양기(1985~1989)’, ‘안동가톨릭농민운동의 전환기(1989~1994)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가톨릭농민회의 시대구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에 의하면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출범 시기나, 1980년 5.17 등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1985년을 분기점으로 설정되고 있다. 물론 1990년 이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하겠다.

2. 가톨릭농민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이 글에서는 일일이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이길재가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안동 가농 30년 역사를 돌아보며」에서 언급하였듯이,

“1978년 창립 이래 안동 가톨릭농민회는 우리 가농·우리농 운동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창립 그다음 해인 1979년에 펼쳐진 소위 안동농민회 오원춘 사건은 그 당시 한국 가톨릭 농민회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이며 안동 가농의 거봉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과 농협에서 알선한 짝이 나지 않은 감자씨에 대한 피해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오원춘 청기분회장의 납치·감금테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원춘 분회장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되어 가톨릭농민회와 한국천주교계가 군부독재정권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하였고, 이 사건은 한국 농민운동은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천주교의 사회변혁운동 역사에도 한 획은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동 가농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듯 안동 가농은 1970~1980년대 농민의 권익실현, 사회민주화운동을 전개하던 역사적 변혁시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었습니다.

1990년대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환 이후에도 안동 가농은 ‘생명농업’을 실현하고 농촌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그러한 노력들이 많은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호분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로 좋은 활동사례를 가톨릭 농민회에 제시해주었습니다. 많은 공동체연구자들이 지금도 자주 찾는 ‘쌍호분회’는 안동을 넘어 가톨릭농민회의 큰 자랑입니다.”

라고 하여, 이른바 오원춘 사건과 생명공동체운동이나 쌍호분회의 활동 등과 같이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가 한국가톨릭 농민운동의 전체 흐름에 미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위해서는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정재돈의 글인 「안동 가농초창기 시절을 돌아보며」의 정리가 매우 유용하다. 평신도로서 안동교구의 농민사목부나 가톨릭농민회만이 아니라, 전국 가톨릭농민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그의 회고담이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활동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내용들이 한국가톨릭농민회사와 관련해서, 안동교구사와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이때 그는 안동교구의 전국화, 사회화 육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가운데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운동들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⁹⁾

1) 안동 가톨릭농민회사건

정재돈은 안동 가톨릭농민회 사건, 즉 이른바 오원춘 사건을 ‘영양 감사피해 보상 - 짓밟히는 농민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서술하고 있다.

“1978년 함평 고구마농협 수매 불이행 피해보상운동이 8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승리한데 이어, 1979년 영양군과 농협에서 공급한 감자(시마바라) 불량종자 피해보상운동이 안동교구 사제단의 지원에 힘입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장섰던 오원춘 청기분회장이 기관원에 의한 납치폭행 사실을 고백하고 성당에서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를 가농 전국조직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전국에 알리자 세칭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농과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조사령이 떨어지고 대검에서 헬기를 타고 다니며 전체 회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오원춘 형제는 물론 대죽공소에서 현직교육을 하던 나와 권종대 회장, 교구청에서 정호경 신부님을 차례로 구속하고, 두봉 주교님까지 추방하려 하였습니다. 8월 6일 목성동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강론하신 기도회를 마치고 안동 최초로 촛불시가행진을 하며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철폐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당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그때 발언으로 구속되고, 점점 전국적으로 번지자 함세웅 신부님도 재구속, 최병옥 전국회장, 서경원 전남연합회장까지 구속되었으며, 정병은, 송창기, 김성순, 장명숙, 김석호, 이유린, 여지연, 주예희, 김병로, 박순자, 전성일, 김창식, 장성규, 유옥진 등 회원들이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신헌재와 가농, 천주교, 민주화세력 간의 전면전은 YH 사건과 함께 유신헌재의 종말을 재촉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안동 가농 사건은 농민의 정치투쟁으로서 70년대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나도 결혼 반 년 만에 감옥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10.26사건 후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어 구속집행 정지로 다른 구속자들과 함께 출옥하였습니다. 한 달간 목성동 성당에서 농성할 때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주신 수많은 이들의 은혜는 평생 갚을 길

19)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이 전국화를 추구한 사실은 1978년에 들어와서 한국가톨릭 농민회 전국임원 연수회를 안동 상지 전문대학 기숙사에서 실시하고,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영남지역)를 함창성당에서 갖는 등 전국적 행사를 개최한 데에서 알 수가 있다(안동교구, 『교구농민회』, p.29).

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70~80년대 군사독재시대는 농민들의 생존권활동 마저도, 예를 들면 지붕개량강제, 증산강제, 농약강매, 비료조별 판매, 강제출자, 조합장이나 총대임명 등 단순한 관료부정이나 부조리, 강제행정 시정, 피해보상 운동조차도 폭압적인 탄압 속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안동지역에서 농민의 생존권투쟁 혹은 권익옹호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보여주었다. 역사상의 농민운동이 그러하였듯이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인 진행코스였다. 처음에는 농민들의 생존권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묻게 되면서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조적 모순에서 농업문제가 파생된 것이며, 그리고 농민에 대한 인권수호가 곧 민주화운동임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톨릭농민회원들로 하여금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농민운동단체로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서 안동교구는 물론, 한국 천주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즉 교회가 하나로 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점도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

정재돈은 안동 가톨릭농민회가 추진한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을 농민운동의 ‘전국화와 사회화 및 육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안동교구에서 대구대교구를 거쳐서 1985년 봄부터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인 80년대 후반부터 농민대중의 투쟁적 진출과 자주적 대중농민운동이 두드러진 시기로 규정한다. 즉 5공화국의 개방농정으로 외국농산물 수입되고, 여기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크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이른바 소몰이 투쟁, 양담배거부 투쟁, 고추투쟁을 설명하였다.²⁰⁾

“또한 쇠고기나 소, 양담배, 고추 등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반외세자주화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겪는 많은 농업문제나 민족문제가 분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노동자들이 겪는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민족운동 통일운동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출발은 농민문제로 비롯되었지만, 점차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성격과 내용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투쟁형태는 진정·건의·서명운동·기도회·농성 등 소극적 요구인 청원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준법적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특히 소 값 폭락에 항의하여 85년 7월 21일 의성 소몰이 시위를 비롯하여 전국 22개 군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인 본당 류강하 신부님께서 지도신부님이셨기에 각종 구호를 쓴 깃발들을 준비하고 경운기에 소를 끌고 본당에서 출발하여 안계 우시장까지 전경들이 제지를 뚫고 행진했습니다. 쌍호에서 남녀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듬해 1986년 개헌 투쟁시기에는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농가부채탕감 살인정권규탄,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안동문화회관에서 역 광장까지 행진을 하는데 최초로 최류탄이 발사되었습니다. 8월에 빗 때문에 자살한 봉화 김정섭 회원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1986년 9월 1일 양담배 수입 시판일에는 의성, 안동, 영양 등 전국 36개 군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를 열고, 미 대사관을 향하여 경운기 가두시위와 농성투쟁을 벌였습니다. 안동은 목성동 성당에서 9월 5일까지 농성과 방송을 하여 전국적 분위기를 고양시켰습니다. 9·1투쟁은 참여한 지역의 수와 대중적 참여로 볼 때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국 동시다발적 대중투쟁이었고, 민족민주운동 안에서 농민운동의 역할이 열

20) 소몰이 시위와 고추싸움에 대해서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2010 소몰이 시위의 재발견」 및 「88년 고추싸움」 및 「막힌 벽에서 발견한 소몰이의 몸짓, 안동가농 벽서사건」 등을 참고할 것. 한편 1984년 대구교구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11.20. 다인성당)에서 15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동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남북농사기술, 종자교류를 제안하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30년 성찰과 미래」, p.16).

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노동자나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민족민주운동의 영역이 농촌지역인 시·군 단위로까지 확장되었으며, 동시다발 항쟁에서 농민투쟁이 도시에 집중되었던 탄압을 분산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음도 확인케 되었습니다. 당시의 동시다발 투쟁경험은 다음 해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이란 전국 동시다발적 투쟁전술을 구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중략)

1988년 고추수입과 가격폭락을 계기로 폭락한 경북 농민대중의 투쟁적 진출(고추투쟁)은 호남의 수세폐지투쟁과 함께 농민의 권리의식과 대중조직 발전의 전환점이 되어 전국농민운동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영양5회(최대 3천여 명, 시가전 방불, 헬기 진압지휘), 봉화 9회(최대 1천여 명, 연 4천여 명, 면별 집회, 올림픽 개막일 철도점검, 민정당 중앙당 사 농성), 청송 6회(면, 군 대회, 최대 1천 5백여 명, 연 4천여 명, 농협중앙회 및 김대중 집 농성), 안동(최대 5천여 명, 연 만여 명, 올림픽 폐막일 군청점거), 의성, 상주, 예천, 영덕, 문경 등에서 충청, 호남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대중투쟁은 그해 11월 17일 이듬해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를 통해 통일된 농민대중조직(과도적으로 전국농민운동연합과 각 군 농민회 결성, 그 총연맹으로서 전농)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용구, 이재원, 이상식, 이도형, 김신태, 강성중, 김승균, 김미영, 우상숙, 조광현 등 젊은 활동가들이 결합해 결출한 현장 활동가들을 많이 배출해냈던 길로 기억됩니다.”

소몰이 투쟁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양담배거부투쟁과 고추투쟁의 경우에 김종헌이 고추투쟁을 크게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정재돈은 양담배거부투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3) 생명운동·공동체 운동의 본산

정재돈은 가톨릭농민운동이 이제 무엇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세력이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대안적 삶의 양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세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톨릭농민회가 그러한 희망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바란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생명운동·공동체 운동 역시 안동교구가 그 본산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¹⁾

“가농은 열려 있는 현장교회로서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출범 전까지 약 20여 년 동안 한국농민운동의 주축을 이루며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주요역량으로 활약했습니다. 가농은 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협회, 전국농민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살림, 우리 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귀농운동 등 대안운동을 개척하여 사회운동의 종갓집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안동 가농은 새 가농의 생명운동·공동체 운동의 본산으로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 전농과 가농의 창조적 분화, 이중 멤버십 아래 새 가농 운동은 전체 농민의 정치적 책무를 전농을 통해 하는 대신, 가농은 가톨릭적 특수성을 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안운동으로서 생명운동·공동체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안동교구에서 농촌생산자와 도시소비자의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에 기초한 도농협동조합 형태의 「생명의 공동체」가 최초로 출발, 이를 대중적으로 보완한 「우리 농산 한 생명」을 본격화하여, 이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요즘도 안동 가농은 유기축산이나 학교급식운동에서도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전국적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교구에서는 1990년에 생명의 공동체가 창립되었으며, 1993년 우리 농산 한생명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997년의 우리 농촌 살리기 안동교구본부가 결성되면서 2000년 이후 도·농 교류 협력형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현장교회’라는 용어는 이후 한국천주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안동교구 25년』에서는 “1990년 5월부터 시작된 교구 내 생명의 공동체 운동은 소공동체운동으로써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21) 역시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가농의 끝없는 길찾기」, 「도농교류가 이루어낸 자급퇴비를 위한 암송아지 입식지원운동」, 「도농교류의 시작과 현황」,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학교급식운동」 등의 글들을 참고할 것.

정착되었다. 따라서 교구의 생명운동과 소공동체운동은 지역민들에게 이제 점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농민운동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 (중략) 해가 갈수록 농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생명의 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는 단계가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에 대한 대단한 집념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가톨릭안동교구연합회의 큰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공동체운동과 관련해서 안동교구는 소공동체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공소사목이 강조되고, 공소가 가톨릭농민회의 분회로서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안동 가농의 심장, 분회」에서는 “새 가농 체제로 돌입하면서 안동 가농은 개인회원활동이 존중되는 소공동체적 특성이 강화된다. 상호분회나 풍양분회와 같이 그 존속이 끊이지 않고 오래 이어온 분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회가 창립과 재창립을 반복한 것은 와해된 분회 속에서 가농에 남기를 선택한 일부 회원들이 개인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회창립기준과도 연관이 있는데 분회창립을 위해서는 정회원 인증을 받은 5가구 이상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10가구까지). 때문에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 한 두 가구 정도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회활동이 아니라 개인 활동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 가농이 정착되면서 새로 가입하는 회원이 늘고 정회원 인증을 받는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 한 두 명으로 명목을 유지해오던 분회가 재창립이란 이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가톨릭농민회가 과거의 조직체계인 전국본부-교구연합회-군협의회-마을분회를 전국본부-교구농민회-본당농민회-마을생활공동체로 바꾸면서 공소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교구 25년』에서는 “1997년 현재 마을별, 동네별 5~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120여개의 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월 모임을 가지면 공동과제를

22) 안동교구, 「생명운동·공동체운동」, 『교구 25년』, pp.212~221.

계획 평가하고 우리 농산물 나누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동교구는 타 교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공동체 운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농촌에 새로운 삶의 방향과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생명의 공동체 운동은 현재 한국천주교회에서 초교구적으로 펴고 있는 ‘농촌 살리기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4) 가톨릭농민회의 문화활동

정재돈은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운동과 함께 한 안동가농’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문화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생명의 공동체 운동이 학교급식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데에는 이러한 문화활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를 통해서 제 2차 바티칸공의회가 추구했던 종교간 대화도 모색되었던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가톨릭농민운동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호경 신부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에서 크게 강조한 바가 있다. 그는 농민 문화는 존재하는가, 왜 농민문화는 사라졌는가, 농민문화의 회복과 창조 의 길은 없는가, 그리고 그 사목적 과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제대로 주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못지않게 문화 역시 사회구성원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정재돈은 농민과 문화의 관계를 고민한 내용을 알려주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문화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초 지역운동으로서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문화활동이 전개된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안동교구를 넘어서 한국천주교회 전체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곧 농민운동의

23) 이길재가 높이 평가한 쌍호분회에 대해서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가농 30년』에 실린 「안동가농의 만형 쌍호분회」를 참고할 것.

기반을 새롭게 확보하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다. 잘 지적하고 있듯이, “특히 농민운동은 농민권익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전체적 민족·민주 운동 안에서 주요 역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울러 지역을 변화시키는 임무도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일체의 보도가 통제되고 사람이 그리운 시절이라 어느 지역에 누가 있다는 걸 서로 알려줘 만나는 게 즐거움이고, 숨통을 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서울 창작과비평사에서 얘기 들었다며 이오덕 선생님(당시 대성초 교장)이 교구청으로 찾아오시고,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 이현주 목사(당시 울진 죽변 감리교회)을 만나면서 권정생 선생님(아동문학가, 당시 일직교회 중지기)과 이철수(판화가)를 알게 되어 만나고, 창비 독자편지에 가명으로 쓰신 글을 보고 만나고 싶어 했던 전우익 선생님(봉화 상운)이 교구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동순 교수(당시 간호대), 조동걸 교수님(당시 안동교대)도 한길사에서 얘기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분들께 당시 접하기 어려운 정보나 자료를 게재해 인기가 높았던 공소사목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종종 식사모임을 했습니다. 한 열흘 현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정호경 신부님께선 좋은 분들과 한잔 하자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동문인협회나 지역인사들과 함께 「육사 문학의 밤」과 「권정생 동화의 밤」을 안동문화회관에서 열기도 하고, 마리스타 학생회관에서 「이철수 판화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초대장을 가리방을 끊어서 엽서에 찍어 보내곤 했어요. 또 백기완 선생님 초청강연회를 안동교회나 문화회관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활동 뿐 아니라 장자 공부모임, 채플린 영화감상모임, 단소교습모임 등 서클도 활발히 조직했습니다. 또 일본어 공부모임을 시작하여 일부는 나중에 안동 YMCA교사회를 추동하고 나아가 전교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교사협의회로 발전하여 갔습니다. 정영상, 김현택, 차영민 선생이 초기부터 하셨습니다. 당시 안동대 임세권, 임재해 교수님은 영화모임을 ‘안동의 오아시스’라고 할 만큼 갈증을 푸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채플린 영화 시리즈를 다 볼수 있도록 왜관 분도수도원의 임 세바스찬 신부님께서 감사하게도 한 달에 몇 번씩 필름과 장비 일체를 가져오셔서 상영하시고 밤늦게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차 기름 값 한번 못 드렸던 게 늘 마음에 빛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승균 유원모, 김미영, 권경희, 이미령, 우상숙, 김태선, 박

무식 등 안동대 학생운동 1세대가 형성되어 농민회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문화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연대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농민운동은 농민권익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전체적 민족·민주운동 안에서 주요 역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울러 지역을 변화시키는 임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학생운동, 전교조,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안동농민회, 안동사랑청년회, 안동학생회관, 안학글방, 안동민주운동연합, 안동문화운동연합 등 지역운동의 흐름도 비로소 형성되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운동 등의 지역운동이 태동할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글글쓰기 연구회도 시작을 안동농민회관에서 이오덕, 권정생, 이현주, 전우익 선생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농민회관에서 그 모임을 했구요.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농민의 노래(나 태어나)」가 그때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오덕, 권정생 선생님이 개사하신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농촌순회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이오덕 선생님이 창비로부터 창비 아동문고 수 십권 씩을 몇 차례 기증받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약한 세월이 가고 모두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농민회관 개관 기념으로 전우익 선생님은 나무서각을 해주셔서 사무실에 걸어뒀는데, 그 내용은 「희망은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이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난 것처럼 희망도 이와 같다」는 노신의 글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사 및 한국천주교회사의 흐름과 관련해서 커다란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의 여러 활동들을 살펴볼 때 한때 안동교구에서 사목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현대의 한국천주교회사를 시대구분한 내용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번에 10주기를 맞은 그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정치의 민주화 추구 시대로, 그 이후는 사회의 인간화 지향 시대로 구분하였던 것이다.²⁴⁾

24) 김수태, 「민족과 교회와 함께」, 『김수환』, 2001. 사회의 인간화라는 용어는 1985년 7월에 발표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사회사목교서로 나온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라는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치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사회의 인간화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것은 안동교구를 비롯해서 한국 가톨릭농민회의 변화가 보여주는 흐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비판에 대한 재응미

지금까지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가톨릭농민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루어보았다. 맺음말에 대신해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기된 몇 가지 비판들을 다시 음미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안동 가농 30년』에 실린 3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언급된 농민 박희태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이 잘 안 잡힙니다. 아까 말하듯이 앞에서 누군가 해 가는데 있어서도 명확한 틀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 앞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내용이 흐려지고, 그리고 농촌의 구조가 다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분도 많고 젊은 층도 있고 하니깐 갈등구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이 공동체라는 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습니다.”²⁵⁾ 그에 의하면 공동체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톨릭농민회에서 활동한 정성현의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역시 “그렇다면 새로운 운동관과 방법은 무엇인가? 농민운동을 통해서 개인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성찰하면서 사회구조악

25) 「30주년 기념 대토론회 종합토론 정리」, pp.44~45.

과 대결하고, 자기를 하느님의 도구로 맡기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생명공동체 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 가농에서는 이에 수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를 확연하게 뜻매김하지는 못하였다.”라고²⁶⁾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농민회에서 운동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가톨릭농민운동의 철학(이상)과 실천(현실)의 조화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농민사목과 농민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거기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을 정의하려고 평생 노력한 정호경 신부의 주장은 곧바로 쉽게 읽히지 않고, 그 내용들 또한 구체적으로 와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톨릭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민족과 민주, 자주 등 수많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여러 용어들이 너무 쉽게, 자주 쓰여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용어들 하나 하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개념 또한 변화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가톨릭농민회의 이념과 강령이 과연 농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와 닿았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점은 두봉 주교의 농민사목관에 대해서 “사목교서 또한 에둘러 이야기하거나 어렵게 말하지 않고 농민들의 언어로, 농민들이 농업농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라는 교시를 담은” 내용으로 농민들이 이해한 사실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농민사목과 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용어에 어떠한 구체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담아서 제대로 사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26) 정성헌, 위의 논문, pp.789~791.

27) 「두봉 주교의 농민사목과 안동가농」, p.88.

싶다. 무엇보다 복음서와 같이 가장 쉬운 말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회와 가톨릭농민회의 관계설정에 대한 부분도 그러하다. 정성헌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길게 언급하고 있다.²⁸⁾ “교회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천주교회의 질서는 매우 위계적이고 또한 분권적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성직자들은 가농에 대하여 교구단위의 독자성은 인정하면서도 전국적 단일조직을 중시하는 조직의 성격과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성격을 가졌었다. 그러므로 가농의 전국본부는 필요 없으며 따라서 전국 지도신부도 둘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이는 교회 지도부의 관용 내지 시각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힘없고 분산되어 있는 농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있는 조직과 강력한 집행력이 필수적이다. 가농은 전통적으로 마을대표(공소단위 대표 포함)와 교구 대표로 이루어진 의사결정기구에서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조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스스로 힘을 갖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 지도부는 ‘교계질서’라는 잣대를 가지고 운동과 조직의 현실을 간과하곤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교회로서의 기능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약화시키려 몇 차례 시도했던 점은, ‘복음화’라는 잣대와 신자확대 및 교회의 도덕적 영향력 증대라는 기준으로 정직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천주교회의 지도부와 가톨릭농민회 지도부와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⁹⁾ “교회 스스로의 문제와 과제이다. 어느 본당 사제의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우리농 운동이 부침을 거듭하는 것은 곤란하다. 운동은 ”스스로, 함께, 끈질기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제가 필요하다. 우리농 운동에 대한 영성을 갖도

28) 정성헌, 위의 논문, p.771.

29) 정성헌, 위의 논문, p.803.

록,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연대가 교회의 모습이며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라는 단순한 일에 실증을 내거나 타성에 빠지지 말도록 도시와 농촌에서 하느님 창조 질서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평신도 스스로, 함께, 끈질기게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사제가 있으면 우리농 운동이 활발하다가 떠나면 아예 그만두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떠나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체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성공모델이 각 교구에 3개씩만 되면 전체적으로 천주교회는 엄청난 성취를 맞볼 것이다.” 즉 그는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 및 평신도의 위치와 활동을 제대로 인식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호경 신부 역시 깊이 고민한 문제들이었다. 그도 성직자와 평신도 농민 및 활동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신부와 지배신부를 헛갈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았다. 지도신부가 평신도 활동가를 지배하려는 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늘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랐다고 한다. 성직자란 농민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그 곁에서 영적으로 지지하고 동반해주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제는 농민들이 일을 잘하라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1987년에 열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가톨릭농민회의 회원자격을 천주교 신자로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그는 농민이면 농민이지 신자농민과 비농민이 따로 없었다고 말하였다.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복음적인지를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는 교회의 복음화사업을 ‘영세’여부뿐만 판단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두봉 주교의 사목관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그는 농민교리서의 편찬과 관련하여 “교리는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상의 삶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더불어 하느님을 찾아 모시고 살도록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얼과 주님의 얼이, 출발부터 함께 가도록 돕는 교리서라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했다.³⁰⁾ 이들은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한 제 2차 바티칸공의회와 정신이라고 이해하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교회와 가톨릭농민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또한 종교와 현실참여, 즉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강인철은 생명공동체운동을 강조하게 된 가톨릭농민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종교성을 어떻게 운동과 연결시키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종교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는 1987년 이후 민중운동 영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압도적 존재감이 약화되는 현상, 다시 말해 ‘민중운동의 비종교화’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본격화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후 비로소 뚜렷하게 현실화되었다고 말한다. 농민운동의 경우 1989년 3월에 결성된 전국농민운동연합, 1990년 4월에 결성된 전국농민회총연(전농)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에서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의 비종교화가 종교적 민중운동의 종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도시빈민운동의 비종교화 과정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종교적 도시빈민운동가들과의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민중운동 전반에서 양자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라고 보았다.³¹⁾ 따라서 복음화로 표현되는 종교와 농민운동과의 관계를 시대와 사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올바르게 연결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성현이 20세기 농민운동의 한계와 관련해서 지적한 가톨릭농민회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마을 현장에 튼튼한 생활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미흡하며, 생산현장의 토대가 취약하다. 농촌현장과 도시현장의 생명·공동체 우리농 운동을 추진할 중심 인물육성이 미흡하다”는 점과,³²⁾ “그러나 정

30) 한상봉, 『농민이 된 신부 정호경』, pp.115~143.

31) 강인철, 위의 논문, pp.294~295.

32) 정성현, 위의 논문, p.805.

예회원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은 크게 미흡하였다. 셋째 현장활동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취약하였다. (중략) 전체 마을사업으로 발전해야겠다. 그러나 그런 안목과 실행력을 가진 회원의 숫자가 너무 적다. 넷째 지나친 권익투쟁 일변도의 활동과 동원형 집회·시위활동에 대한 다른 시각의 평가를 내려야 한다. 농민대중의 정서나 수준과 떨어져 너무 앞서 나가거나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 보면 조직은 대중과 유리되고, 일부 회원 중심의 강경노선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³³⁾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과,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즉 지도자라고 불리는 활동가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동교구의 가톨릭농민회 활동과 관련해서 회원의 숫자 및 활동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김종헌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된 사실이었다.³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농민운동의 활동가를 계속적으로 발굴해내지 못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농민의식 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은 활발하게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끌어갈 중간지도자 양성에 실패했다. (중략) 그나마 농민대중이 주체가 된 대중투쟁보다는 조직의 간부나 신부들이 중심이 되는 기구주의적 투쟁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의 해결을 통해서 농민운동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지 농민교육, 영성농민교육, 분회교육, 사랑방교육, 농촌지도자 연수회 등 많은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미비했었다. 이는 안동 가농이 가장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군 농민회가 결성됨에 따라 기존의 가농과 신규로 생성된 군 농민회 사이에서 활동가들은 이중적 업무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안동 가농은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매번의 교육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농민운동 활동가와 지역 농민들 간의 시각 차이였다. 다시 말해서 농민의 입으로,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물론

33) 정성헌, 위의 논문, p.789.

34) 김종헌, 위의 논문, p.114.

교육과정 중에 사례발표를 통해서 농민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미흡하였다. 이는 저학력 농민들에게 의식을 일깨워주고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농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1983년에 올바른 인간관계의 강의를 통해서 시도했으나 오히려 거부반응을 낳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리더인 활동가는 누구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지게 한다. 이 때 이들의 이후 행로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가들이 일반 농민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동가들이 보여주었던 다양한 진로들을 염두에 둘 때 교회에 대한 반성축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활동가 내지 참여자들의 성찰 또한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리더의 개념이 이제는 크게 바뀌고 있음을 새롭게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의 의미와 방법 또한 새롭게 인식하고 변화시켜야 할 때가 왔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 평신도나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계몽의 대상으로서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성직자나 수도자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것은 농민운동의 활동가 일반농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대등하고 열린 관계를 맺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찌면 1980년대 중반 이전 보다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과 함께, 그 미래가 마냥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³⁵⁾

35) 이 글이 완성된 이후에 나온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실린 정현진 기자의 「사목교서에 없는 농민, 사목대상에서 배제됐다.」(2019.2.28.자 기사)의 내용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9년 신년 기획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노동, 평화, 인권, 농민의 네 가지 주제로 다루었는데, 농민과 관련해서는 가톨릭농민회의 정한길 회장과,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백광진 신부, 그리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이재욱 소장의 인터뷰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은 1987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운동이 한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관계 맺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매우 새롭게,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나, 성직자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활동가 등과 같은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밖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한국사회에서 종식되었음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앞에 나서서 움직여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주었던 것이다.

특히 일반 농민들 역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이나 계층의 차이나 구별을 넘어서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주인공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동교구의 농민사목과 가톨릭농민회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언급하였듯이, 정의의 추구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낳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하여금 서로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천주교회의 농민사목이나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제대로 추구될 때 모두 이상으로 삼는 일상에서의 민주화와 인간화라는 두 개의 커다란 목표가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듯이, 한국사회 또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사회정의가 보장된 올바른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 가농 30년』, 2011.
- 강인철, 『종교권력과 한국천주교회』, 2008.
- 안동교구, 『교구 25년』, 1997.
- 안동교구, 『연도별 안동교구 사목교서(1969~2014)』, 2015.
- 정호경,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농민사목』, 1986.
- 정호경, 『해방하시는 하느님-농민공동체의 교리서(시안)』, 1987.
- 한국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 50년사』, 2017.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99.
- 한상봉, 『농민이 된 신부 정호경』, 2013.
- 안동교구, 『교구농민회』, 1996.
- 안동교구,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연구 자료집』, 2004.
-
- 김수태, 「라리보 주교의 대전교구 사목」, 『프랑스 선교사와 충청도』, 2018
- 김수태, 「민족과 교회와 함께」, 『김수환』, 2001.
- 김승오, 「한국가톨릭농민회와 생명공동체운동」,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종현, 「경북지역 농민운동사연구 : 1976~1994-안동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 김태일,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 : 1964~1990」,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 두 봉, 「한국에서의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전망」, 『교회사연구』 5, 1987.
- 안동교구 농민사목실행위원회,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연구』, 2004.
- 이기백, 「농민과 국가권력」, 『한국사시민강좌』 제 6집, 1990.
-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한국농민운동사연구』, 1991.
- 정성현, 「한국 천주교회의 농민운동」,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2000.

Abstract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Andong Diocese

Kim, Soo-tae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activities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the Andong Diocese have profound significance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the history of Andong Diocese,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ndong Diocese, at that time, was leading the peasant pastoral and Catholic farmers movement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Catholic church.

Therefore,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activities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the Andong Diocese should be properly given their historical position in the course of the World Catholic Church history.

However, current studies on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activities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the Andong Diocese are not done properly. Most of the studies so far have shown the limits of applying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logical analysis for the farmers movement. Those studies do not show specific interest for the abundant historical record of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activities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the Andong Diocese. In addition, the impressive faiths and activities of the bishops, priests and laymen whom participated are not dealt in detail. Although those clearly have

a significance in the research area of movement history, but it demonstrates that future researches regarding the peasant and the farmers movement require a new approach from the field of history.

This paper briefly addressed the positive and leading influences of the Catholic Peasant Movement in Andong Diocese o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and of Korean Catholic Church. This approach can be said to be a task of preparing a stepping stone for the vast work to grasp the whole activity and meaning of the Korean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the future. With the fresh perspectives of fundamental researches regarding the peasant pastoral and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Andong diocese, hope that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Catholic Church will be newly read.

keywords:

Andong Diocese, The Peasant Pastoral,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The Catholic Peasant Movement, Bishop, Priest, Laymen